

統一新羅土器初考

金 元 龍

一 序 說

統一新羅時代土器에 대한 研究는 하나들 概觀的인 것은 있으나① 綜合的이고 集中的인 深層作業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 그것은 이 時期에 副葬土器資料가 激減하고 遊離資料가 大部分이라는 데서 오는 研究困難의 탓도 있겠지만 이 時期土器에 대해서 長期計劃을 세우고 資料를 蒐集, 蓄積해나가는 專門學徒가 아직 없다는데 原因이 있을 것이다.

統一期土器에서의 問題點은 그 樣式의 出現年代를 비롯해서 編年의 基準이 될만한 資料가 없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統一期土器에 대해서는 大體的인 前後期區分도 세워서 못하고 있는 現狀이다. 이러한 狀態에서 雁鳴池에서의 이 時期土器資料의 大量出土와 그의 實測圖 公刊②은 統一期土器研究에 큰 朗報가 아닐 수 없었으나 形式, 文樣種類 등에 관한 統計學的 資料가 未盡해서 土器들의 層位的 出土狀況의 把握不能과 함께 研究資料로서의 限界를 좁혀주고 있다. 또 뒤에서 모든 이 古墳에서의 出土例도 있기는 하나 거의가 盜掘된 뒤의 殘餘品으로서 이것역시 問題가 많고 窯址의 경우도 統計學的分析이 없어 相對的인 編年設定資料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筆者의 이 小稿는 당연히 統一新羅土器의 樣相全般에 대한 考察이 되어야 할 것이나 주어진 四箇月이라는 時間과 資料上의 以上과 같은 隘

路를 때문에 報告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資料와 하나들 主로 博物館의 好意로 入手한 實測圖들을 바탕으로 해서 統一期土器의 于先 大體的인 編年設定을 하나의 假說로서 提出해 보려는 것이며 앞으로의 보다 넓고 깊은 研究를 위한 하나의 試論 또는 初稿로서 내놓는 바이다.

二 統一新羅土器樣式

그러면 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統一樣式이라고 할 수 있는 土器의 定義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

有光敎一은 忠孝里古墳群報告書(一九三二年)에서 이 石室墳들이 統一期古墳이 틀림없는 九政洞方形古墳과 形式이 같을뿐 아니라 忠孝里一〇號墳出土 金製鉸具는 方形古墳出土 銀製鉸具와 같고 또 忠孝里九號墳石扉 鏤座장식의 蓮瓣이 統一樣式인 것, 그리고 忠孝里古墳出土 土器들이 印花文 骨壺들과 同形式이고 文武王(六八二年)에 記錄에 初出한 王身火葬이 孝成王(七四一), 宣德王(七八四年), 元聖王(七九八) 등으로 계속되고 있어 火葬(따라서 骨壺)의 流行이 八世紀를 頂點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忠孝里石室墳들을 모두 統一期古墳, 거기서 나온 土器를 統一期土器라고 한 다음, 그 特色에 대해서 아래처럼 要約하고 있다.

「우선 高杯, 향아리 모두 積石木槨墳出土品の 경우는 大形器에 있어서도 形態가 輕快하고 燒成堅緻하며 器壁이 얇은데 대해 이것들(忠孝里土器)은 大體로 小形이면서도 鈍重한 모습이고 形態에 비해 두터운 印象을 주고 있다. 高杯의 경우 木槨墳出土例는 다리가 높고 길게 뻗어 날선하며 透孔도 시원스러운 長方形인데 對해 忠孝里一號墳, 一〇號墳出土의 高杯는 身部에 비해 다리가 몹시 짧고 담담한 모습이며 透孔도 小圓孔 또는 이그리진 小方孔으로 退化하고 있다. 또 九號墳出土의 향아리는 비슷한 것이 木槨墳에서 나오지만 그것들은 다리가 높고 透孔도 뚜렷하고 輕快한 모습이지만 여기서는 다리가 매우 짧아 굽받침처럼 되었고 透孔도 있는 등 없는 등한 小孔으로 되어 있다.

또 二號, 三號墳出土의 盒은 木槨墳土器에서는 볼 수 없는 新土器形이며 慶州周邊丘陵에서 흔히 發見되는 火葬骨壺와 同形이다. 그리고 文樣도 木槨墳土器가 波狀文, 直線文을 沈刻하고 있는데 對하여 기서는 圓弧·重圈 같은 押型文의 文樣의 連續으로 끝나고 있으며 花文施文具를 分明히 쓴 例도 있다. 그리고 그 施文이 蓋身 꼭지 끝을 包含, 그릇全體를 덮고 있는 例도 있다. 이것은 그 器形과 함께 木槨墳土器에서 볼 수 없는 장식方法이다^③.

결국 有光敎一은 骨壺를 統一기土器로 보고 忠孝里古墳出土土器로代表되는 類似形態의 土器들을 統一기土器로 設定한 것이며 器形으로는 짧은 다리, 작은 透孔의 투박한 高杯, 역시 다리가 짧아 굽처럼 된 長頭壺, 그리고 新出器形으로서의 有蓋盒 등과 施文技法上으로는 무늬를 施文具로 두드리거나 누른 押型文, 印花文을 그 特色으로 잡고 있다.

有光敎一의 以上과 같은 統一樣式土器의 概念設定은 비록 初期段階의 概畧的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古墳出土資料에 의한 統一樣式土器의 最初의 把握이라는 데서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統一기土器에 관한 決定的資料는 年代가 확실한 雁鴨池의 發掘(1975~76)로써 얻게 되었으며 거기서 나온 復原可能土器 一六〇〇餘點과 復原不可能一〇〇〇個體分중 主要한 것은 實測圖가 모두 報告書에 收錄公開됨으로써 우리는 처음으로 확실한 統一기의 實用土器形態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古墳出土 또는 遊離資料는 일단 뒤로 돌리고 統一기土器의 標識的標本으로서 雁鴨池出土의 土器를 基準으로 器形과 文樣其他 技法上의 特色을 整理해 볼까 하는 바이다.

雁鴨池는 統一기後인 文武王二四年(六七四年)에 築造되었으며 臨海殿의 이름이 敬順王때까지도 史記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④ 統一기新羅全期間을 통해 宮池로 活用되었다고 믿어지며 新羅의 滅亡後 王宮의 廢墟化와 함께 廢池로 남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번 出土品中에 古新羅 및 高麗遺物이 없는 點으로도 實證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出土品들은 六七四年에서 一〇세기初까지의 統一기全期間 約三五〇年 가까운

時間에 걸쳐 연못築石岸 옆에 세워졌던 宮建物에서 버려졌거나 建物の 倒壞와 함께 빠져들어간 物件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遺物堆積에는 層位現象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浚渫이라는 工程事情과 堆積物의 性格上 그러한 層位發見發掘이 어려워 發掘品報告는 平面的인 展開記錄으로밖에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 土器들은 그 確實한 年代와 出土地, 그리고 副葬品이 아닌 生活實用土器라는 點에서 統一기新羅土器의 研究에는 다시 없는 資料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제 雁鴨池土器의 性格은 아래처럼 整理된다.

(1) 胎 土

胎土는 거의 모두 精選된 좋은 흙이지만 굽이 없는 막집시, 圓底항아리 등에서는 흰 長石粒이 섞인 거친 흙이 쓰여진 것이 있어 用途 또는窯에 따라 胎土에 差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燒成度 및 色調

大部分 古新羅土器와 같은 高溫燒成의 炆器이며 色은 灰色, 黑灰色이 壓倒的이지만 막집시, 圓底壺 등은 燒成도 낮고 빛도 灰白色으로 되어 있다.

(3) 器 形

(1) 高 杯

有蓋式과 無蓋式으로 갈라지는데 有蓋式이 二三개 無蓋式이 五개밖에 없으며 高杯의 數가 적다는 것은 그것이 祭器와 같은 特殊器여서 日常用土器와는 原則的으로 結合하지 않았는지 雁鴨池에서의 堆積期間 即 高杯의 存續期間이 짧았기 때문일 것이다.

有蓋式(圖 1 上列)은 우선 各部數値에서 杯口部直徑이 高杯總高의 약 二倍, 다리의 바닥 直徑은 高杯總高와 거의 같다는 比率를 보여주고 있

다. 또 다리의 높이는 口徑의 약 1/4이 된다. 이것을 古新羅高杯와 比할 때 古新羅高杯에서도 杯口徑은 總高와 같으나 다리의 높이는 口徑의 1/2以上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統一期高杯는 杯徑과 杯總高의 比例는 古新羅杯의 傳統을 그대로 남기면서 다리高와 杯徑의 比例가 크게 달라져 低矮한 形態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杯身口緣部는 뚜껑받이가 안으로 기울면서 U字形홈을 만들고 있는 것이 特色인데 이러한 口緣은 百濟에서는 五世紀에 發生^⑤, 日本에까지 퍼지고 있다(圖 2), 그리고 그러한 홈식口緣이 扶餘地方 火葬骨壺의 뚜껑에 나타나고 있는데^⑥(圖 3) 慶州의 홈식口緣은 이러한 百濟土器의 傳統과 關連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雁鴨池高杯의 다리는 古新羅式으로 一~二줄 凸條로써 上下二分되었고 上下엇갈리게 透孔이 各段3개씩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몹시 작아진 것은 앞서 有光教一이 忠孝里土器에서 指摘한바와 같다.

한편 雁鴨池에서 나온 뚜껑으로 高杯나 甌에 덮혔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1 뚜껑의 윤두가 높아 斷面이 半圓形에 가깝고 高杯口緣과 맞닿을 드림새가 若干 안쪽으로 꺾인 것(圖 4의 1)

2 뚜껑의 높이가 낮아지고 뚜껑 曲面이 내려가다가 끝부분에서 若干 들리며 홈이 생겨 그릇 아가리위에 덮히도록 된 것(圖 4의 2), 이런 뚜껑은 뒤집어 놓으면 그대로 접시가 될 수 있다.

3 홈이 없고 뚜껑 끝이 꺾이면서 끝난 形式(圖 4의 3)

의 三形式이 있으며 一式은 古新羅高杯傳統, 二式은 百濟傳統이 分明한데 三式도 百濟末期土器에 나타나고 있어^⑦ 역시 二式과 함께 百濟土器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以上 三形式中 一, 二式은 모두 高杯 뚜껑으로 쓰였을 것이지만 一形式이 古新羅高杯 뚜껑의 傳統을 이어 받고 있고 杯身에서는 有蓋式이 亦是 古新羅傳統을 남기고 있어 有蓋式高杯에는 一形式의 뚜껑이 쓰였다고 생각되며 實地로 國立博物館의 褐釉高杯(圖 6)는 그러한 結合相을 보

여주고 있다.

雁鴨池의 有蓋式高杯는 雁鴨池의 築成年代인 六七四年에는 이미 나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高杯가 결국 七世紀 中葉頃의 形式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을 것이며 六世紀中葉頃의 高杯形式이라고 믿어지는 皇龍寺址出土 高杯(圖 5)와 比較할 때 다리의 短小化, 透孔의 小形化, 뚜껑받이의 冚形化等 傾向을 繼承하면서 一世紀 사이의 變化의 度を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고 앞으로 이 두 形式의 中間過程을 보여주는 年代 확실한 資料가 나오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한편 無蓋高杯(圖 1의 下段)는 몸이 깊어지고 몸의 上下두군데에 平行沈線이 돌고 上部沈線윗부분은 若干 角度를 달리해서 일어서는 口緣部 또는 뚜껑받이 같은 餘韻을 남기고 있다. 또 몸에 半重圈文 連珠 物방울무늬가 印文된 一例에서는 兩側に 구멍없는 귀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어 古新羅傳統의 退化器官임을 말해주고 있고 다리에는 凸條로 갈라진 上下段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또 하나의 例에 있어서는 구멍이 下段 基緣가까이에만 있어 無透孔에로의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無孔귀손잡이가 달린 無蓋高杯는 百濟地域인 忠南鎭山芭蕉里의 石槨墳^⑧에서도 나오고(圖 1의 下段石端) 慶州西岳里石室墳^⑨에서도 나오고 있다(圖 36下右), 芭蕉里古墳에서는 重圈文球形瓶, 平底盤口瓶, 重圈印文高杯 뚜껑 등 統一期杯式의 土器들이 나왔으며 百濟地區에 대한 統一杯式土器의 逆流를 보여주고 있으며 西岳里古墳은 後說하다시피 가장 初期의 統一杯式土器와 器形構成(容)을 보여주어 重要하다.

그리고 귀손잡이 없는 無蓋高杯로서 忠孝里一號墳出土의 例(圖 42)는 口緣部 밑이 더 잘라지고 身部凸條들이 날카로운 點 등 雁鴨池高杯보다 더 古式인 듯한 印象을 준다.

以上에서 略述된바와 같은 高杯의 形式變遷을 圖示한 것이 圖 7이며 有蓋式은 6-7-8-9의 順으로 無蓋式은 1-2-3-4-5-6-7-8-9의 順으로 變化한 것 같고 10番의 高杯는 無蓋杯의 한 變移種으로 時期는 빠른 쪽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國立博物館의 褐釉高杯는 그 形

態나 文樣으로 보아 여기 有蓋式의 最古式과 맞서거나 조금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圖 6)

(2) 臺 盃(굽사발)

굽이 달린 알은 사발모양 그릇으로 雁鳴池에서는 器形復原可能한 것만 五二〇餘개가 나와 여기 器種중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盃이 統一期에 들어서서 出現하여 가장 流行한 器種이었다고 생각된다. 盃에는 印花文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二種이 있는데 前者는 大體로 小形이면서 胎土, 燒成 모두 精製土器이지만 後者는 口徑二〇 정도의 大形이며 胎土도 거칠고 낮은 火度로 구운 것이 많아 前者와는 用途가 다른 막그릇인 것 같다.

無文盃은 몸에 一, 二, 三줄의 沈線이 돌은 것과 없는 것의 두 形式으로 갈라지는데(圖 8) 有線形式은 器壁側線이 배가 부른 曲線을 나타내지만 無文形式은 보다 直線으로 올라가 器形이 V字形이 되어 高麗初의 青磁器形과 통하는 點이 있다. 이것은 有線式의 沈線이 高杯의 傳統을 이어받았거나 壺杆塚出土의 靑銅壺杆에서 보다 실은 三國期 銅鉢의 形式과 連結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有線式이 無線式보다 앞서는 形式이고 沈線의 數는 三線→二線→一線 順으로 退化해서 無文으로 變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印花文形式(圖 9)에 있어서는 口緣 바로 밑에 凸條가 돈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器壁은 曲線이다. 印花文에는 雲文, 草花文, 連珠花文, 蟬形文, 點線松葉文 등 各種이 있으나 骨壺의 全面施文傾向에 비해 드문드문 配置하는 傾向이 뚜렷하며 그것이 骨壺와 日常特殊容器와의 差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松葉文爲主의 印花文으로 장식되고 蓋下端이 逆U字形爲式으로 되어 있는 뚜껑(圖 10)들은 주로 이러한 印花文台盃에 쓰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雁鳴池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西岳里古墳에서 나온 것 같은 扁球形몸에 뚜껑을 덮은 蓋盃 또는 蓋壺(圖 36 上段)는 여기 台盃과 形態

上的 連結點이 있는 것 같기도 하나 이것은 보다 古新羅期 短頸壺의 系統이라고 생각되며 器形으로 成立된 뒤에는 주로 骨壺로 使用되었기 때문에 雁鳴池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3) 접시

台盃을 더 눌러서 低平하게 만든 것 같은 굽달린 접시와(圖 11) 굽이 없기 바닥이 若干 曲面이거나 들린 形式이며(圖 12) 外周에 印花文이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납작접시중 굽없는 것은 古新羅期의 蓋杯에서 變化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굽접시는 七世紀에 들어와서 새로 나타나는 器形인 듯하고 日本에서도 八世紀경에 流行한 器種^㉔으로(圖 13下) 그것은 모두 隋唐의 굽접시(圖 13上)와 連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본 器形쪽지의 그릇 뚜껑을 뒤집어 놓고 접시로 쓰기 시작하면서 생긴 自體發生의 可能性도 勿論 排除할 수 없다.

(4) 燈

徑一〇cm 未滿의 간단한 보시기 형이며 胎土도 나쁘고 火度도 낮다.(圖 14) 바닥이 뾰족한 것이나 口緣部 아래가 잘리워진 것은 등근 데발침에 얹어 놓기 위한 用意라고 생각된다.

(5) 硯

모두 一개의 陶硯이 나왔는데 中國式의 獸足硯은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圓筒形의 上部 가까이 안쪽에 隔板을 대고 그 中央部를 들여 올려 圓形의 硯面과 周圍의 硯池를 만든 것으로(圖 5) 圓筒部에 透孔을 뚫은 것과 없는 것이 있다. 數量으로 보나 形態上的 便宜로 보나 이 圓筒硯이 보다 오래 流行한 形式인 듯 하며 朝鮮時代의 瓦硯에도 그 傳統을 示唆하는 例가 있다.

(6) 球形壺

항아리에는 여러 種類가 있으나 이들 球形壺, 筒形壺, 廣口壺의 三種으로 大別할 수 있다. 이 중 球形壺는 古新羅期の 소위 卮壺의 傳統을 繼承한 것이며 統一期初의 台附長頸壺는 西岳里古墳에서 나오고 있으나 (圖 15, 36) 雁鴨池에서는 나온 것이 없다. 그러나 圖 17의 長頸圓底壺는 목, 어깨에 凸條가 돌고 있고 목의 上下段區分, 壺身의 形態 등 古新羅 傳統을 보이면서 목이 長頸과 短頸의 混合된 것 같은 形式이 統一新羅 임을 말해 주고 있다.

圖 18의 長頸壺는 平底이고 목에서 줄이 없어졌지만 古式傳統을 남긴 形態로서 器形에 百濟土器의 風이 示唆되고 있다. 이 土器는 報告書에 의하면 臨海殿址地下에서 發見되었으며 따라서 年代는 六七四年以前이고 안에서 骨片과 함께 唐의 開元通寶가 4개 나와 年代上限이 唐高祖武德四年(六二一年)임을 알 수 있는 貴重한 土器資料이다.

圖 19의 항아리들은 이 形式에서 다시 變化한 것이며 이제 形態는 完全히 統一樣式으로 定着되고 있다.

이밖에 短頸球形壺로는 어깨에 橫位였가락의 손잡이가 달린 高四二cm의 大形例가 있다.

(7) 筒形壺

이것은 몸이 길쭉한 항아리로서 廣口平底의 新形式이다. (圖 20) 그 중 一例(圖 20의 3)는 목의 上下段에 各 한 줄기씩 波文을 돌리고 있어 古新羅傳統을 남기면서 單線波文이라는 統一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復元된 것은 三例뿐이지만 몸이 梅瓶形으로서 넓은 어깨에서 허리以下가 좁혀져 내려오는 長頸筒形壺가 있으며 圖 21의 右例(高六〇cm)는 목이 凸條로 上下二分되고 넓어진 口緣部도 古新羅後期の 盤口形式의 傳統을 남기고 있어 이것은 台脚을 길게 해서 球形身과 連結해 버린 變形 台脚長頸壺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圖 21의 左例의 筒形壺

와는 出發點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8) 廣口壺

이것은 胎土質도 나쁘고 火度도 높지 않은 灰白·黑灰色의 瓦質, 막 그릇으로 表面에는 擬似格文, 繩文의 두들긴 무늬가 있으며 그것이 그릇의 機能과 함께 金海土器以來의 技法이 命脈을 끌고 있는 停滯樣式이라 하겠다. 器形은 半球形의 廣口圓底로서 雁鴨池에서는 6點이 나왔고(圖 22) 그중에는 丹青原料인 石間朱(酸化鐵)가 안에 묻어 있는 것이 있어 建物丹青工들의 作業用 물감그릇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打捺文 瓦質圓底壺가 印花文骨壺와 함께 慶州南山에서 發見된 例가 있다^①.

(9) 瓶形器

이것은 가늘고 긴 목에 작은 아가리가 달린 전형적인 瓶形式과 목은 짧지만 아가리가 작고 그릇 크기로 보아 항아리라고 하기에는 不適當한 形式을 말하기 때문에 形態도 多樣하지만 전형적인 例에서는 몸이 扁球形이고 아가리가 盤口形式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圖 23) 이 盤口瓶은 忠孝里九號墳出土의 靑銅瓶形器(圖 43)와 같은 中國의 唐代器形에서 배운 것이 확실하며 雁鴨池에서 여러개 나온 古形뚜껑 또는 뚜껑 바닥이 아가리안으로 들어가게 된 뚜껑들(圖 24)은 이러한 盤口瓶의 마개 또는 뚜껑임이 分明하다.

그리고 高麗時代에 流行한 瓶形式의 祖型이 나타나고(圖 25의 右) 역시 高麗時代의 油瓶과 같은 球形瓶도 나온다. (圖 26의 左) 表面에 세로 隆起줄을 돌린 것도 이러한 瓶形器에서 흔히 나오는 바이다.

한편 瓶身의 面이 曲面이 아니고 斷面方形의 角瓶으로 된 것(圖 26의 1), 또는 一面은 曲面이고 一面은 扁平하게 된 方圓瓶(圖 26의 2) 같은 特異形이 나타나는 것이 이 瓶形器의 特色인데 뒤에서 다시 言及하듯이 鬱陵島의 天府洞古墳에서 나오고 있으며 거기서의 器形構成狀況으로 보아 方圓瓶, 角瓶 등은 統一期の 後期에 나타나는 新器種으로서 그

것은 統一기에 들어서서 經濟·社會發展을 背景으로 하는 遠距離積載의 必要에서 考案된 新製品이라고 생각된다.

(4) 表面裝飾

그러면 마지막으로 表面裝飾인데 一般厨房用具나 막그릇의 경우에는 沈線、波狀線、凸條 등을 띠엄띠엄 돌리거나 無文으로 둔 것, 또는 金海土器 以來의 陶拍文을 두드린 것이 있으나 骨壺 또는 食卓에서 쓰일 수 있는 精製器의 경우는 도장을 利用한 印花文을 施文하는 것이 特色이다.

印花文은 처음에는 古新羅時代後期에 流行한 三角·重圈(中心에 中心點이 있는 二重圓)、三角·半圈을 結合文을 쓰다가(圖 36) 後에는 各種花文을 反復 印文한 華麗한 것으로 바뀌되 一般用器보다 特殊器、骨壺의 경우 全面에 빈틈없이 施文하였던 모양이다. 그 文樣은 點列로 된 松葉文(圖 10 및 圖 23)、雲文(圖 9의 3)、四花文(圖 23 어께)(圖 27 어께部)、蟬形文(圖 9의 5) 連珠團花文(圖 9의 1、圖 27)、珠列水滴文(圖 27 두경)、꽃과 꽃을 줄로 連結한 花繩文(圖 23의 어께、圖 28)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文樣周緣에 珠列을 돌린 文樣은 元來 사산美術에서 流行하여 中央아시아를 통해 中國으로 들어 온 것이며(圖 29) 南北朝時代越州窯 및 唐代陶磁중에는 그러한 連珠文을 陽文으로 나타낸 것이 있다.(圖 30、31) 統一기의 印花文探擇은 이러한 中國 貼花文磁器의 裝飾을 印文으로써 代用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산美術의 特色인 連珠文은 皇龍寺鷓鴣屋에도 陽文으로 나타나 있다.(圖 32)

印花文技法은 後期에 들어가면서 차츰 退化한 모양이나 統一期末까지 계속된 것 같고 高麗靑磁의 象嵌技法은 新羅印花文技法과 連結되는着想이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雲文、鳥文 등 實地로 羅·麗間에 形態相通하는 文樣이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한편 統一기에 들어서서 低火度의 鉛釉器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統一기에 들어서서 唐陶磁에서 새로 배운 것이거나 百濟陶工을 통해 紹介되었을 것이다.

至今 高杯중 古形式에 施釉例가 있는 것은(圖 6) 施釉가 統一기初부터 實施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鉛釉라는 것은 矽물이나 모래가루 溶液(硅酸)에 天然酸인 炭酸鉛(白鉛鑛 또는 鉛丹)을 섞고 發色劑로 銅 또는 鐵分을 섞은 것으로서 鐵分은 矽物(木灰溶液)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고 銅分은 酸化銅이다. 이 銅分은 酸化焰으로 구으면 靑綠色이 되고還元焰이면 褐色이 된다. 그런데 鉛釉는 溶解度가 십제 七〇〇~八〇〇 정도이고 그以上 高溫이 되면 釉가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土器自體도 軟質이 되고 胎土중의 鐵分이 酸化해서 胎土는 붉은 색이 된다. 그래서 從來의 炆器質을 維持하는 施釉土器를 만들려면 溶解度가 높은 灰釉나 長石釉를 써야 하는데 月城郡見谷面金丈三里에서 灰釉綠釉系統 一期窯址가 發見되었다고 하나 詳報가 없다¹²⁾. 한편 國立博物館에는 新羅三彩釉器라는 高杯가 두개(圖 6) 있어서 唐의 三彩를 배운 新羅三彩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鐵分이 많이 섞인 鉛釉를 酸化焰으로 구어 褐色 바탕에 黑斑이 생긴 것이며 唐의 三彩는 綠·褐·無色透明의 三色을 말하고 八세기에 들어서야 出現하기 때문에 우리 施釉高杯는 唐의 三彩보다는 年代도 앞서고 색도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¹³⁾.

三 統一新羅土器窯址

以上과 같은 統一기樣土器를 내는 窯址로는 아래와 같은 數例가 있으나 아직 發掘된 土器片의 統計學的分析이 되어 있지 않아 年代、特色 등 諸般細部에 관해서는 不分明한 點이 많다.

(1) 月城郡望星里窯址

慶州市南쪽 平野에 둥근 무덤처럼 솟아있는 望星山의 기슭에 群在하는 窯址로서 一九六五年 筆者에 의해 一基의 窯址가 發掘되었다¹⁴⁾. 窯址는 傾斜面에 築造된 터널式登窯로서 破壞가 甚해 原狀은 알기 힘들다 壁間幅 一、七m 길이 一〇m 以上되는 것으로서 土器중에는 古新羅後期

의 長頸壺, 高杯도 있지만 綠釉印文土器 등 印花文土器를 비롯한 統一期樣式이 들어 있다. (圖 33) 그러나 文樣은 三角重圈結合文, 點線文 등이 많고 複雜한 花文이 드문 것으로 보아 古新羅後期에서 統一初期에 걸친 窯址라고 생각된다.

(2) 서울 송암洞窯址

一九七三年에 發見된 것으로 一九七六年 宅地整理를 위해 發掘調査되었다¹⁵⁾

元來 冠岳山東北麓에서 漢江쪽으로 뻗은 支脈의 傾斜面에 있던 登窯로서 역시 窯의 構造는 밝혀지 못했으나 土器는 印花文土器를 비롯하여 扁球形盤口瓶, 唇式 뚜껑, 上形 뚜껑, 굽그릇 등 典型的 統一樣式을 갖추고 있다. (圖 24) 花文에도 連珠花文이 많으나 부채꼴 花文 등 特殊한 것이 있고 鋸齒形單線文이 향아리 목, 口緣部에 盛用되는 것은 아가리 안쪽에 한 줄기 턱이 있는 것과 함께 百濟樣式이 남아 있는 서울地區樣式이라 할 수 있어 興味있다. 時代는 方圓瓶形式이 없는 點으로 보아 統一前期에 該當되는 것 같이 생각된다.

(3) 月城見谷面金丈三里窯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一九七八年 三月에 國立博物館에 의해 調査된 것으로 新羅初期부터 統一末期까지의 官窯群集地로 報告되었고 綠灰色 釉器가 存在한다고 하나 詳細한 것을 알 수 없다.

四 統一新羅土器를 내는 古墳

統一新羅土器를 내는 古墳으로서 至今까지 報告된 것은 極히 少數이다. 그런데 그 古墳들은 長頸壺, 扁球形瓶과 高杯를 내는 一群과 그런 것이 없이 瓶形器(方圓形器包含)를 많이 내는 一群의 두 群으로 나누어지며 前群에서는 처음에는 三角重圈文이 施文되다가 차츰 連珠花文

과 交替하며 唐器의 影響이 分명한 扁球形瓶이 流行하는 것도 特色이다.

이에 대해서 後期에는 高杯가 消滅하고 長頸瓶이 나타나며 또 물의 斷面に 平面이 생기는 角瓶, 方圓瓶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중에서 차츰 印花文이 없어지는 것도 이 後群의 한 特色이다.

그러나 前後期의 時間的 境界를 어디에 두는가는 아직 不分明하며 編年의 基準을 當장 찾을 수 없어 當分間 相對的인 區分으로 남겨두는 바이다.

(1) 前期(長頸壺, 高杯副葬)

(1) 慶州 西岳里 石室古墳

丘陵地帶의 石室古墳의 하나로서 一九六四年 慶州博物館이 發掘하였다¹⁶⁾.

石室은 東西二, 六五m, 南北二, 七m의 正方形이며 南壁中央에 길이一, 六m, 幅一, 二五m의 羨道가 달린 소위 모字形으로서 石塊를 쌓고 灰칠하되 一m 높기부터 四壁을 內傾시켜 天井石二枚를 덮였으며 天井高는 二, 三m이다. (圖 35)

이 石室안에 二, 二×二, 一×〇, 五m(高)의 石築棺臺를 만들고 頭形을 세진 石枕 두 개가 나란히 東枕으로 놓이고 石製足座 한 개와 기와 足座가 西邊에, 그리고 棺臺南쪽部分에는 한쪽이 큰 半筒瓦로 長方形區劃을 만들었고 있었다.

副葬品으로는 鐵刀子 1, 銅쪽집게 1, 靑銅扁臺 1 以外에 石室東南隅바닥에서 長頸壺 1, 棺壺위에서 小形長頸壺 1, 蓋盒 5(그중 2개는 바닥으로 落下), 高杯 1, 뚜껑 1이 發見되었다. 이들 土器의 細部는 다음과 같다.

1, 有蓋長頸壺(圖 36 左下)
高二七, 九로서 폭은 二凸條로 上下二分되고 各段에는 重圈, 長三角

列이 印文으로 나타나있고 같은 文樣이 어깨部分에도 施文되어 있다. 몸은 球形으로서 그것이 若干 허리가 좁아진 목의 曲線과 잘 調和되며 古新羅期の 強勁한 印象과는 다른 부드러운 印象을 주고 있다. 바닥에 달린 다리는 거의 굽처럼 낮아졌으나 아직 方孔이 틀려 있어 그것이 古新羅臺附長頸壺의 退化形임을 말해주고 있다.

뚜껑에는 寶珠形 꼭지가 달렸고 三角, 重圈文으로 장식되었으며 뚜껑 基緣은 향아리의 아가리를 덮을 수 있도록 밖으로 꺾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나, 長頸壺(圖 36의 中右)

高一三、八cm의 小形이며 施文面積이 前者보다 줄고 목中央의 凸條도 없어지고 있으나 굽다리는 바닥이 若干 밖으로 퍼져 보다 古新羅土器의 모습에 닮고 있다. 위 향아리와 함께 이러한 短脚長頸壺로서 三角, 重圈文으로 장식된 形式이 統一樣式長頸壺로서는 가장 古式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 印文은 이 土器들이 副葬用이라는 데서 오는 特殊目的에 의한 施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古新羅期長頸壺 傳統의 마지막 示現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妥當한 것 같고 이 西岳里古墳段階를 지나 雁鴨池期가 되면 施文이 없어지거나 單線波文으로 바뀌게 된 모양이다.

ㄷ, 蓋盒(圖 36의 上列)

高一〇cm, 腹徑一三cm의 납작한 그릇이며 三角, 半圈文이 施文된다. 뚜껑의 基緣은 흙식이다.

ㄹ, 高杯(圖 36의 下右), 뚜껑(全圖上左)

高八、二cm의 無蓋式高杯로서 다리도 제법 높고 구멍도 크고 段狀으로 된 杯身과 두개의 退化손잡이등 古式傳統을 이어받고 있다. 이것은 함께 나온 뚜껑이 無文이고 운반가 높은 古式인 點과 아올려 이 高杯가 統一樣式으로서는 가장 빠른 쪽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上이 西岳里古墳의 土器는 長頸壺, 高杯, 蓋盒으로 構成되며 形態上, 文樣上 古新羅期土器와 連結되고 있으며 統一期石室墳으로서는 그 初期에 該當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高杯는 雁鴨池出土器와도 直結되고 있으며 이 西岳里古墳의 實年代가 7世紀中葉以前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慶州市路西洞의 雙床塚은 모字形石室, 石築棺臺, 東枕의 雙石枕이라는 데서 이 西岳里古墳과 같으며 完全盜掘墳이기는 하지만 封土에서 몇개의 印花文土器片이 나왔다는 點에서 時期的으로 같은 段階의 것이라고 믿어지며 같은 石室이면서 棺臺가 南北主軸으로 바뀌는 忠孝里一、九號墳보다는 時期的으로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墓制上으로도 南面石室이라는 새 制度를 따르면서 枕向은 東枕이라는 古新羅傳統을 지키려는 意識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結局 統一新羅土器가 副葬되는 가장 빠른 古墳은 南面모字形石室에 東枕(石枕)合葬棺臺를 가진 形式이라 하겠다.

(2) 蔚州華山里二號墳

丘陵地帶의 群集墓로서 一九八二年 釜山大學에서 發掘한 것이며 ⑩ 西偏姜道の 方形石室과 竪穴式長方形石槨의 두 形式古墳을 三六基發掘한 중에서 二、四、六、一、二、二〇號墳이 확실한 統一樣式土器를 내는 古墳이고 ㄱ字石室은 古新羅로 올라가는 形式의 土器를 내고 있는데 대체上記 五墓古墳은 二號墳을 除外하고는 모두 竪穴式이라는 데 特色이 있다. 그리고 古墳들은 破壞되고 있으나 出土되는 土器의 性格으로 보아 副葬土器들은 大體로 原狀을 保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一旦 編年資料로 쓸 수 있다.

二號墳은 破壞가 甚해 墓原狀을 알 수 없으나 方形石室이었다고 생각되며 土器는 臺盤破片, 印花文, 扁球壺形器, 長頸壺의 口部, 打捺文圓底壺들이 發見되고 있다. (圖 37) 扁球壺形器는 中國隋唐代陶磁器(全圖中央)에서 넘겨받은 器形인데 中國것보다 몸이 더 납작해지고 넓은 굽이

달린 것이 특성이며 統一期에 流行하다가 高麗의 小形油壺에까지 連結된다.

이 二號墳에서는 高杯는 나오지 않았으나 뒤에서 보듯이 다른 古墳에서는 高杯들이 나오고 있으며 여기 三角重圈文과 함께 이 古墳의 年代가 前期에 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華山里四號墳

竪穴石室墳이며 球形細口壺、重圈文鉢、打捺文圓底壺 등이 採集되었다.(圖 38) 重圈文鉢은 몸中間部에 沈線이 돌고 그 上下各面에 重圈印文이 配置되고 있다. 그 形態가 다음 六、一二號墳出土의 鉢들과 비슷하고 印文이 重圈이라는 데서 前期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4) 華山里六號墳

역시 石槨墳으로서 高杯 2、扁球壺形瓶 2、圓底短頸壺 2、鉢 1 등이 나왔다(圖 39)

高杯는 上下二段의 다리에 小方孔이 뚫렸고 口緣部는 漏斗形으로 된 것이며 뚜껑은 基緣이 外反했다가 아래로 꺾이는 統一樣式으로서 뚜껑曲線이 그대로 내려오다가 드림새로 꺾이거나 外反度가 顯著하지 않은 西岳里古墳例(圖 36)들 보다는 發達된 段階라고 하겠다. 뚜껑의 印文은 鱗文이다.

扁球壺形瓶의 하나(圖 39의 6)는 二號墳例보다는 목이 길지만 文樣은 같은 三角重圈文이고 또 하나(圖 2)는 더 높여서 배가 튀어나온 形態이며 아가리는 盤口形이다. 文樣은 목에는 連珠花文、 몸에는 連珠花文과 重疊圓圈文(鱗文)이 施文되어 있다.

圓底壺와 鉢은 雁鴨池出土品과 類似하다.

이 六號墳은 高杯가 雁鴨池 것과 같다는 點、扁球壺形瓶에 連珠花文이 나타나고 있다는 點에서 三角、重圈文器이고 長頸壺를 同伴하는 西岳里古墳보다는 늦은 段階라고 생각된다.

(5) 華山里一二號墳

土器는 蓋盒 2、扁球壺形瓶 1 뿐이다.(圖 40) 扁球壺形瓶이 있다는 點에서 아직 前期에 속하겠지만 文樣은 重疊圓圈文一色이고 뚜껑의 基緣部外反이 거의 水平으로 되어 턱을 만들고 있어 六號墳보다는 또 한 段階 떨어진 것 같다.

(6) 華山里二〇號墳

역시 竪穴式石槨墳이며 扁球壺形瓶 3、圓底短頸壺 3、보시기 2가 나왔다.(圖 41) 扁球壺形瓶은 하나는 三角·重圈文、하나는 連珠水滴文(圖 41의 3)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連珠文의 出現、高杯不在 등으로 미루어 西岳里古墳보다도 華山里六號墳보다도 뒤 段階의 古墳이라고 생각된다.

(7) 忠孝里一號墳

忠孝里古墳들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一九三二년에 有光教一에 依해 發掘調査된 것이다.

天井部가 缺失된 南向의 方形西偏羨道石室墳으로서 다른 古墳의 例로 보아 棺은 石室의 東半部에 南北方向으로 놓였었을 것이다. 盜掘墳으로서 高杯 두 개만이 남아 있었다.(圖 42) 高杯는 모두 無蓋式이지만 뚜껑 받이의 傳統、杯脚의 凸條 등 古式傳統을 남기고 있음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다.

(8) 忠孝里九號墳

역시 西偏羨道、南向方形石室墳으로서 盜掘墳이며 長頸壺·靑銅壺形瓶 各 1 개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長頸壺는 거의 筒化한 다리、內曲의 목、球形身 등 西岳里古墳 것과 같

으나 文樣이 圓圈文과 連珠花文 뿐으로 時期的으로 뒤떨어짐을 示唆하고 있다. 銅瓶은 統一期에 流行한 扁球壺形瓶의 範本이 된 中國器이며 아마 唐製品일 可能性이 높다. (圖 43)

(9) 忠孝里二號墳

같은 西偏羨道墳이지만 棺臺가 北壁에 붙어 東西方向으로 만들어지고 平瓦를 깔은 棺臺위에 東枕으로 누워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土器는 扁平盒과 굽그릇이 各한개씩 있었을 뿐인데 盒은 西岳里古墳例와 닮고 굽그릇에는 點線松葉文이 있어 역시 前期에 속하는 土器라고 생각된다. (圖 44)

(2) 後期(角面器副葬)

(1) 天府洞一號墳

鬱陵島北面天府洞에 있으며 이십의 統一新羅期에서 高麗時代에 걸친 것이라고 생각되는 積石塚중의 하나로서 一九六三年에 筆者들에 의해發掘된 3基중의 하나이다¹⁹⁾. 이 古墳은 이미 攪亂되었으나 길이約 六m, 幅一, 三m 高一, 四m 정도의 긴 橫口式石槨으로서 槨西半部에서 高杯 1, 四角小瓶 1, 平底壺 1, 四耳壺 1, 大破印花文長頸瓶 2, 平底打捺繩 席文平底鉢 1 등이 金銅帶鈔, 金銅鈴, 유리玉 등과 함께 採集되었다. (圖 45)

여기 土器중에는 高杯가 一點 들어 있다는 點에서 前期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四耳壺(高三六cm)와 角瓶(高一三cm)이라는 새로운 器形의 存在는 이 土器들이 後期群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릇의 曲面을 平面化한 器形은 近來 各地 埋藏物發見報告例(文化財管理局接受)중에서 볼 수 있으며 文化財管理局의 埋藏物評價審議會에서 筆者가 實見한바에 의하면 高麗初라고 생각되는 無釉陶器속에 섞여 있고 實地로 高麗初一〇世紀頃の 綠青磁盤口瓶이 存在하고 있다.

(圖 46)¹⁹⁾ 따라서 이 角面器는 新羅統一期後期에 發生, 高麗初까지 流行하였고 그것이 潛流로 되어 朝鮮時代까지 이어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 角面器의 存在가 統一期後期土器樣式의 한 標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2) 天府洞三號墳

槨의 길이 六m, 幅一, 二m 高一, 四m의 것으로 一號墳과 거의 同大 同形이다.

土器(圖 47)는 退化形高杯 2, 角瓶 2, 扁球形印花文瓶 1, 長頸印花文瓶 2, 그리고 石槨壁石 밖에서 나온 大破된 大形 橫凸帶文壺(圖 47의 6)가 있다.

高杯(圖 47의 3, 4)는 高六, 三cm의 同形同大의 것 두개로서 灰白色軟質이며 一見 그것들이 西岳里, 忠孝里 등 無蓋式高杯의 退化形임을 알 수 있고 큰 杯身의 다리가 거의 굽처럼 낮아져 臺盤形을 이루고 있으나 짧은지연정 凸條가 둘러진 것은 그것이 高杯의 다리의 退化形임을 明示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古新羅高杯中에서 變化해 온 統一期高杯의 마지막 形態라고 하겠다.

角瓶(同圖 1, 5)은 高一四cm, 二五cm의 大小 두개로서 아가리는 盤口이며 沈線이 둘러진 口部外緣은 中國六朝時代陶磁器의 盤口(圖 48)가 古新羅後期土器를 통해서 統一期로 이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몸은 角瓶의 四面을 平板으로 둘러 各面에 橢圓形의 平面이 생기게 한 것으로서 瓶身 네모서리는 모가 죽은 抹角形으로 되어 있다.

이 角瓶들이 無文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運酒實用具라는 데도原因이 있겠지만 統一後期에 있어서의 印花文의 消滅과 無文化傾向의 反映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無文角瓶段階를 거쳐서 高麗初의 無文無釉土器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圓形身의 曲面을 平面化한 이러한 角瓶은 必是 燒酎瓶으로서 酒類運搬上의 必要에서 생긴 新羅人의 創案이며 積載面積減小, 破損防止

의 두 長點을 가진 新案品이라고 할 수 있고 新羅後期에 들어서서의 釀酒業의 發展과 酒類의 長距離運送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그것이 특히 鬱陵島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海運과 關連된 것 같아서 興味있다.

長頸瓶(同圖 7, 8) 두 개는 모두 破損品이지만 卵形身에 긴 목, 짧은 굽이 달린 것으로 點線文, 連珠文 등 印花文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瓶의 全形은 다음 天府洞二號墳의 完全品(圖 50의 7)과 같은 것이 분명하며 목은 沈線으로 上下二分되고 아가리는 盤口系統이면서 外緣沈線數가 둘에서 하나로 줄었고 그것이 다시 變化, 高麗初의 盤口(圖 49)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러한 長頸瓶의 出現은 角瓶 그리고 土器의 無文化系統과 함께 後期土器樣式의 한 特色이라 하겠다.

(3) 天府洞二號墳

이 古墳은 幅一、四m, 高一、一m, 깊이 거의 一〇m에 가까운 長大墳으로서 出土人骨로 보아 夫婦가 東西方向一列로서 머리를 맞대고 다리를 反對쪽으로 펴고 合葬되었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또 土器도 東西二群으로 갈려져 있어 두 群사이에는 얼마간의 時間差가 있는 듯하나 그것을 器形上으로 區分할 수는 없었다. 圖 50의 土器중 W字를 붙인 것이 西群이고 나머지는 東群이다.

여기서 나온 角瓶(圖 50의 2, 6)은 三號墳것보다 훌쩍해진 것이特徵이고 아가리도 簡化形盤口이다.

長頸瓶은 完形(同圖 7)과 破品(同 1)이 있는데 破品の 點線折帶文은 特異하다.

雁鴨池形式의 굽사발(同圖 8)이 들어있고 破損된 隆起線文器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半身은 圓形, 半身은 平面인 方圓瓶(同 4)과 장군(同 9)은 初出의 器形이다. 方圓形은 角瓶에 着想한 野外用酒瓶일 것이며 장군도 酒器임이 분명하다.

五 要 約

以上, 統一時代全期를 代表하는 雁鴨池出土土器를 通해서 소위 統一土器樣式을 設定하고 몇몇 土器副葬古墳을 基準으로 統一樣式을 前, 後의 二期 또는 群으로 區分하여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以上所論의 內容을 要約함으로써 結言으로 代하려는 바이다.

1 統一樣式

統一樣式은 엄격히는 統一新羅時代의 土器樣式을 말하는 것이지만 古新羅樣式에서 統一樣式에로의 過渡期樣相이 正確히 把握되고 있지 못하며 雁鴨池造成時(六七四年)에 이미 出現하고 있던 土器形式이 그보다 얼마 전에 發生하였는가는 正確히 밝혀낼 수 없다. 그러나 皇龍寺址出土의 古新羅系高杯(圖 5)가 六世紀後半의 中半頃까지 계속하고 있었고 統一樣式土器에로의 轉換이 隋, 唐 그리고 百濟土器의 器形外의 接觸을 하나의 契機로 하고 있음을 考慮할 때 統一樣式의 發生은 七世紀에 들어서서의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그 本格化는 新羅의 三國統一 즉 七世紀中葉頃을 契機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樣式의 現在 最古段階이라고 생각되는 西岳里古墳土器(七世紀前半의 늦은 무렵?)를 거쳐 六七〇年代부터는 雁鴨池土器樣式으로 發展해 간 것이라고 하겠다.

統一樣式의 器形上의 特色은 短小·小孔의 高杯와 굽다리라고 할 수 있는 短脚의 長頸壺, 蓋盒이라고 불리우는 굽사발, 접시, 그리고 扁球壺形瓶, 盤口細口의 瓶形器, 長頸瓶, 그리고 角瓶, 方圓瓶 등의 存在이며 表面裝飾은 처음에는 三角, 重圈結合文(印文)에서 아마 唐磁의 貼花文에서 翻安한 各種 印花文, 그리고 單線波狀文, 隆起條文 등이 使用되다가 차츰 無文化하여 高麗로 넘어간다. 그러나 高麗靑磁의 象嵌技法은 統一土器의 印花文手法이 潛流로 남으면서 形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編 年

統一樣式的 編年에 關係서는 實年代上의 區分은 어렵으나 器種의 結合相, 器形의 變化, 裝飾手法등을 基準으로 大體로 다음의 前, 後 두 群 또는 時期로 區分할 수 있을 것 같다.

(1) 前期樣式

ㄱ, 器種은 高杯, 長頸壺, 扁球壺形瓶, 蓋盒, 甬口鉢等이며 古新羅高杯의 退化形인 高杯의 存在가 標識가 된다.

ㄴ, 高杯에는 有蓋式과 無蓋式이 있으며 뚜껑은 半球形이고 드림새는 杯의 뚜껑반이 안쪽에 半쯤 들어가 걸치게 되는 古新羅式單緣形式(圖 6)과 뚜껑반이 밖에서부터 덮어씌우는 翫式(圖 10)의 두가지가 있다.

杯에 退化耳形손잡이가 달린 것이 있고 다리의 구멍은 몹시 작아지고 上下二段 또는 어느 한쪽에만 뚫리는 경우도 있으나 그數는 古新羅高杯의 四개에서 三개로 줄어들고 있다.

ㄷ, 長頸壺는 목, 器身은 古新羅傳統을 남기고 있으나 口緣의 끝(唇)이 凸帶를 돌린 것처럼 둥글게 마무리된것과 頸·身 모두 profile의 曲線이 부드럽게 된 것이 古新羅形과 다르고 다리가 구멍뚫린 古新羅形式이면서 몹시 짧아져 거의 굽처럼 된 것이 特色이다.(圖 36) ㄹ, 扁球壺形瓶(圖 37, 40)은 唐器에서 배운 새 器形이지만 목과 몸의 區分이 더 확실해지고 各部의 形態가 바뀌는 등 新羅化가 뚜렷하다.

ㅁ, 高杯와 蓋盒의 뚜껑은 굽形까지, 翫패인 基緣등 全體적으로 百濟土器로부터의 影響이 强하게 느껴진다.

ㅂ, 甬口鉢(臺盥)은 側線이 曲線이고 口緣 밑 또는 몸中間部에 凸條 또는 沈線에 둘러진다.

ㄱ, 前期의 처음段階에서는 古新羅後期에서 繼承한 三角, 重圈 結合文이 印文으로 高杯, 長頸壺, 扁球壺形瓶, 蓋盒의 뚜껑에 使用되지만 나중에는 없애지고 單緣의 波狀文, 各種의 印花文이 使用된다.

ㄴ, 印花文은 中國의 凸花文磁器에서 翻案한 듯 하며 文樣중에는 分明히 西域系인 連珠文, 花繩文 등이 있다.

ㄷ, 印花文은 日常器에도 使用되었지만 그런 경우는 空間이 많이 남는 傾向이 있다.

ㄹ, 鉛釉는 前期初부터 使用되었으나 그것은 特殊器에만 局限된 듯하고 唐代 三彩釉法은 實行된 證據가 없다.

ㅁ, 統一樣式土器는 慶州에서는 南面모字形石室墓로서 內部에 石築棺臺가 있고 그위에 東枕의 石枕이 並置되는 合葬形式무덤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으며 現在로서는 西岳里古墳의 土器가 最古의 統一樣式土器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蔚州華山里에서는 豎穴式石槨墓에서 統一樣式土器가 나타나고 있다. 統一期前期樣式을 내는 其他古墳으로 는 忠孝里古墳, 蔚州華山里 二, 四, 六, 一, 二, 二〇號墳, 鬱陵島天府洞 一號墳 등이 있다.

(2) 後期樣式

ㄱ, 長頸瓶, 角瓶, 方圓瓶 등 瓶形器, 굽접시 등이 標識의 이고 高杯는 一部 남아 있으나 다리가 더욱 작아지고 구멍이 없어 甬口鉢같은 形態로 된다.(圖 47) ㄴ, 瓶, 器形의 口部는 盤口形式이면서 차츰 簡化되어 高麗形式과의 連結을 보여준다.

ㄷ, 方圓瓶, 角瓶 등 器身의 面이 平面이 되는 器形의 出現은 特殊材料, 또는 容器的 遠距離運搬을 反映하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결국

主要 酒產地, 主要土器生產地의 出現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하다.

ㄹ, 甬口鉢의 側線은 前期의 曲面과는 달리 直線化하는 傾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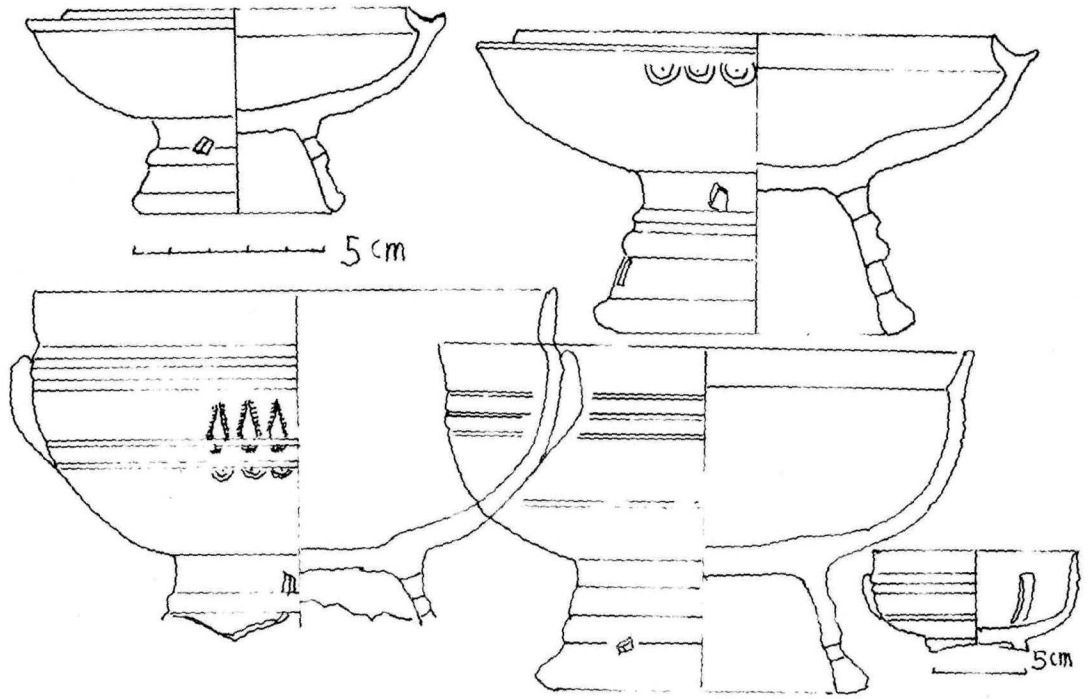


圖 1. 雁鴨池 出土 高杯(下右端爲 錦山芭蕉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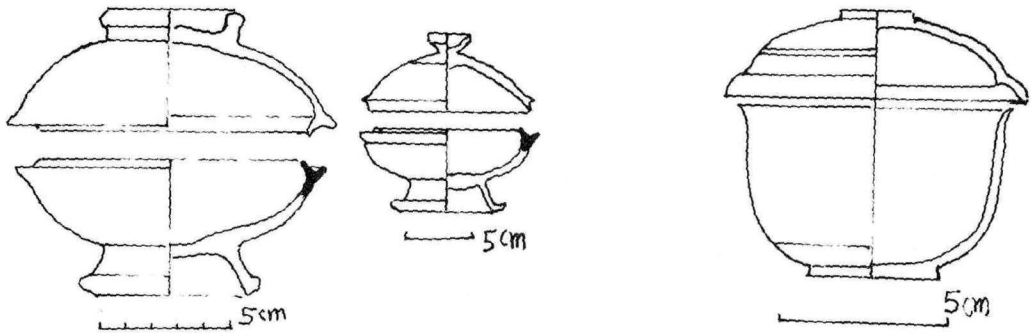


圖 2. 有蓋器 左 對馬島
右 서울 芳黃洞 4號墳

圖 3. 扶餘 中井里 2號墳 土器
(塚 姜仁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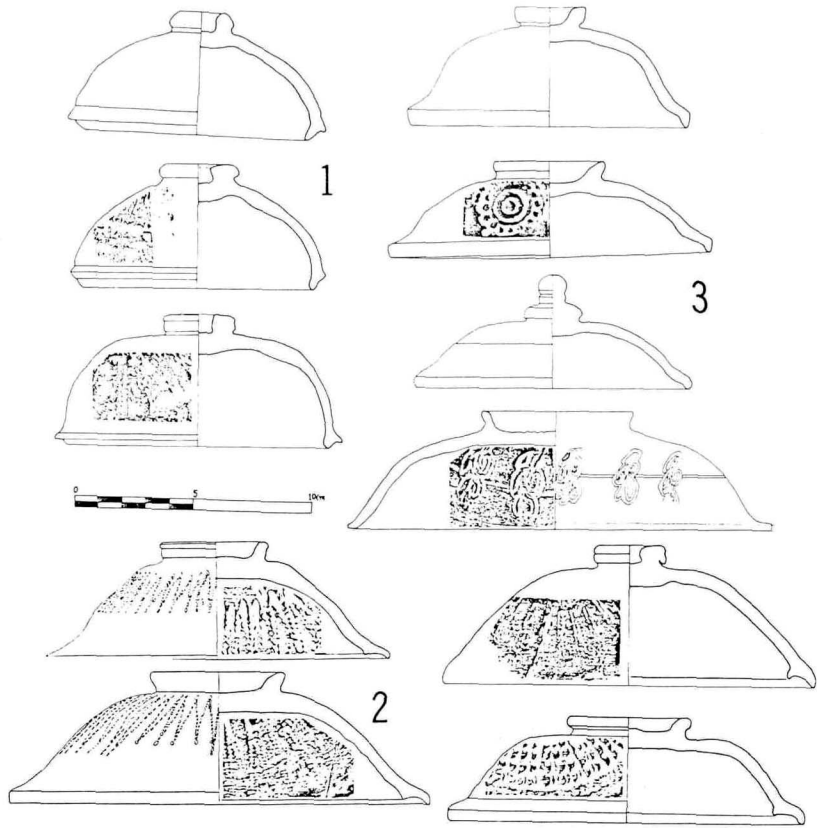


圖 4. 雁鴨池出土 平甕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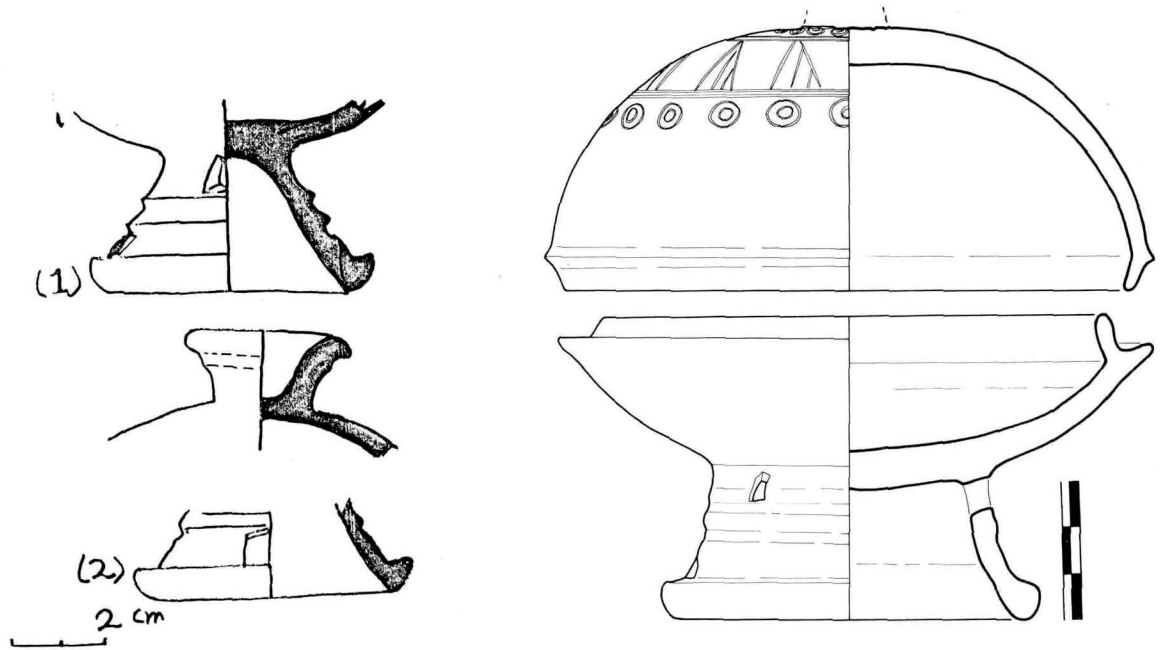


圖 5. 高杯(古新羅) 1. 皇龍寺 埋空地下出土(569以前)
2. 皇龍寺 金臺址下出土(584以前)

圖 6. 褐彩高杯(原州博物館 安承模 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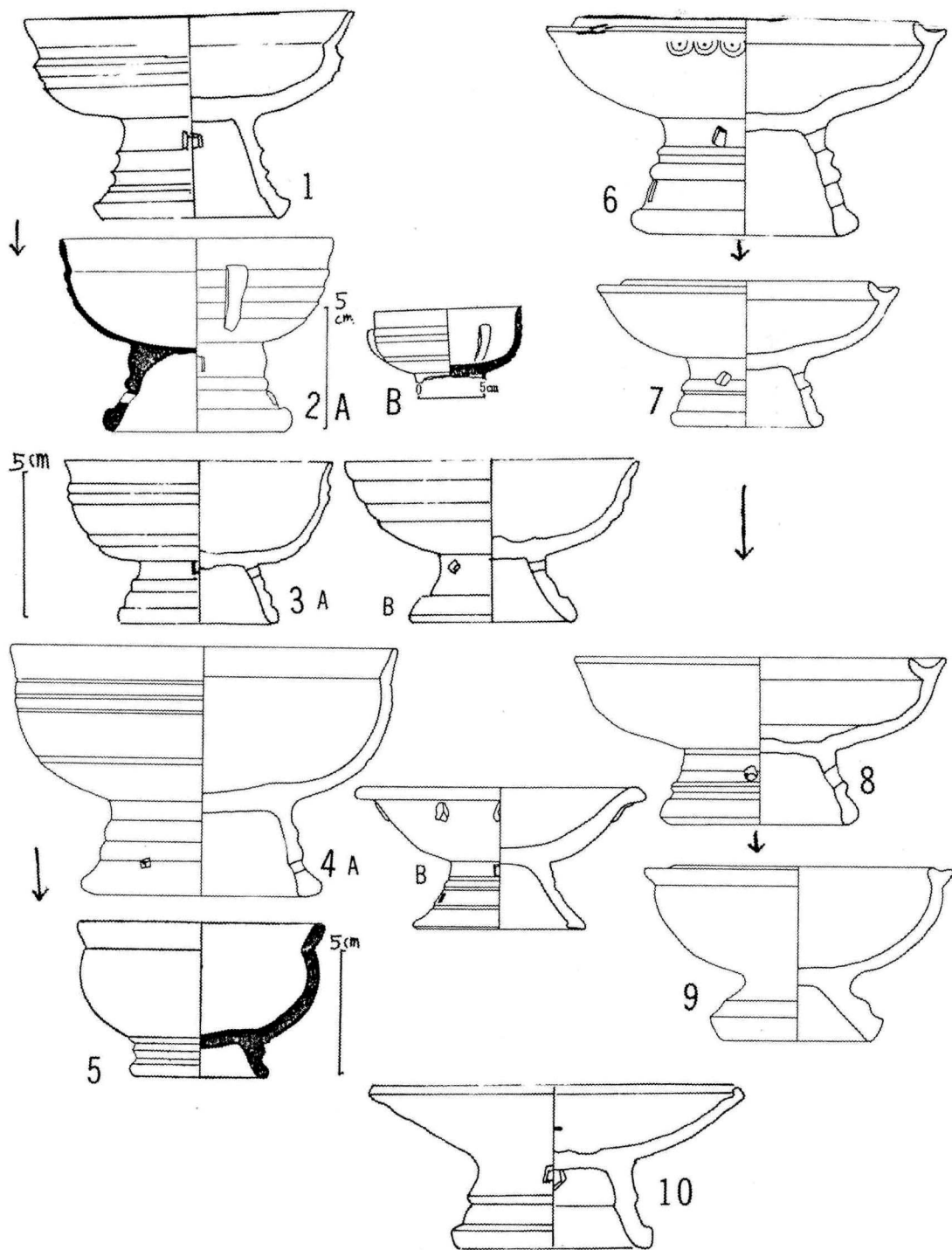


圖7. 統一期椽式 高杯

- 1. 忠孝里 1號墳
- 2a. 西岳里古墳 2b. 芭蕉里
- 3. 天對洞 1號墳 4. 雁鴨池
- 5. 天對洞 3號墳
- 6~10. 雁鴨池
- 11. 忠孝里 10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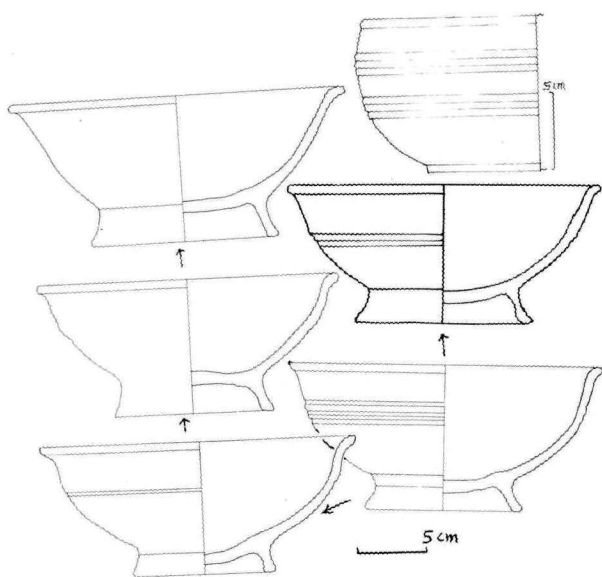


圖 8 雁鴨池出土 台盆各種 (右上端位 高句麗青銅壺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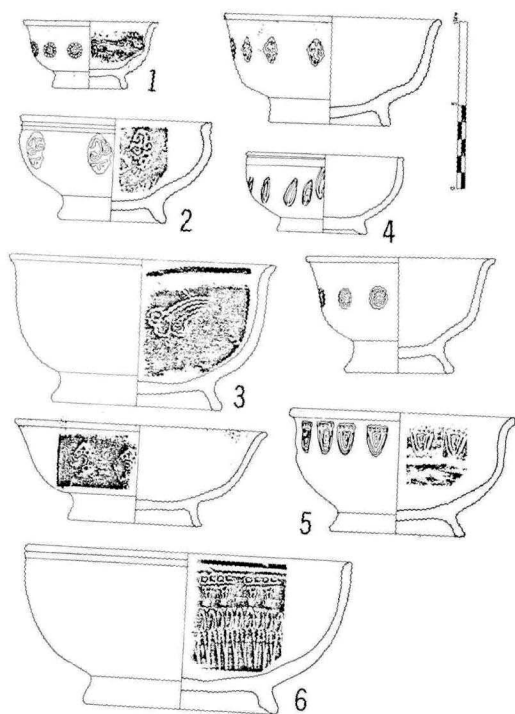


圖 9. 雁鴨池出土 印花文臺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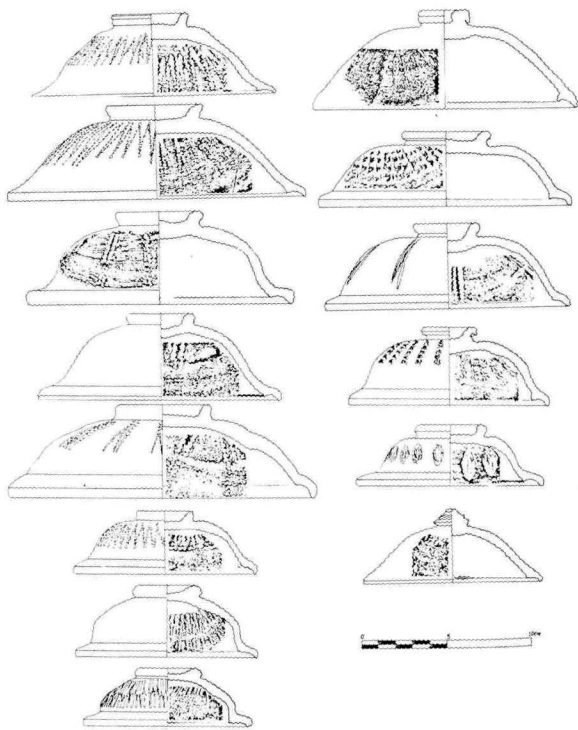


圖10. 雁鴨池出土 器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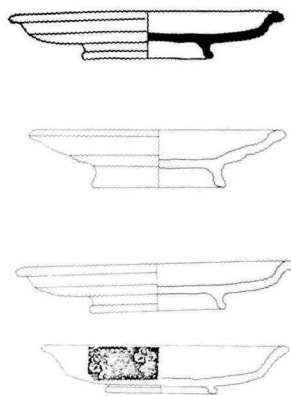


圖 11. 雁鴨池出土 金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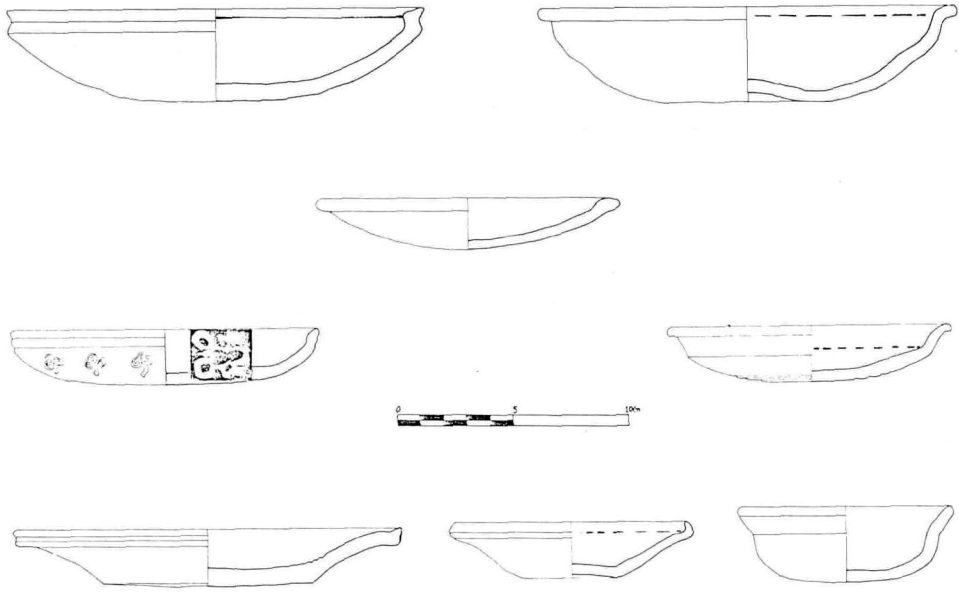


圖 12. 雁鴨池出土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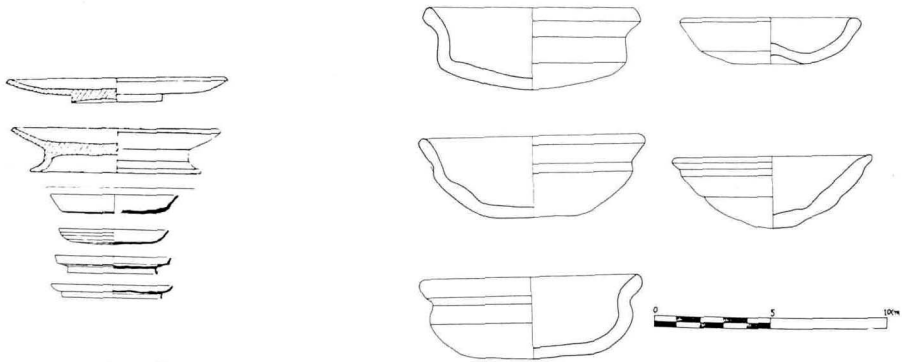


圖 13. 접시 (卡²唐 / 卡⁴日本)
(據 考古80-6, 世界陶磁全集 2)

圖 14. 雁鴨池 出土 燈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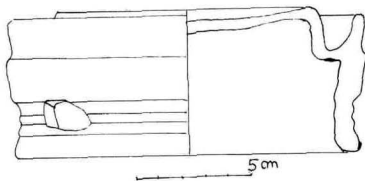


圖 15. 雁鴨池出土 陶硯



圖 16. 長頭台臺(西岳里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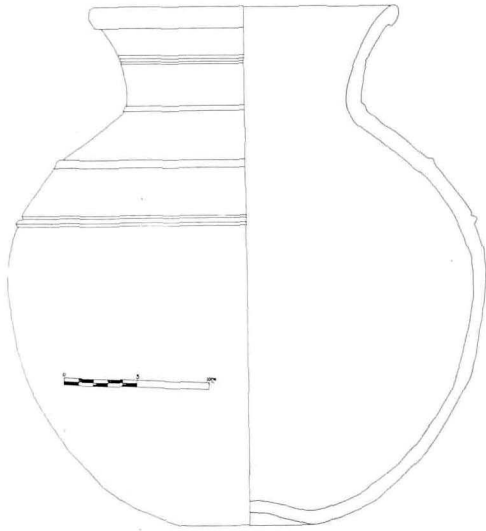


圖17. 長頭球形臺(雁鴨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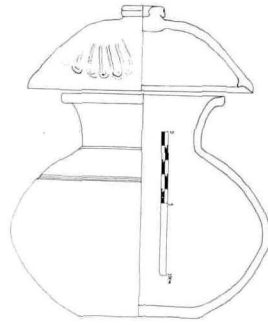


圖18. 長頭球形臺
(雁鴨池621~674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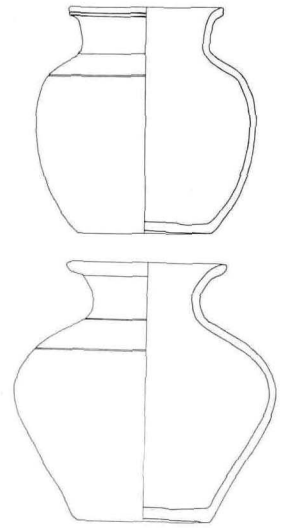


圖19. 球形臺(雁鴨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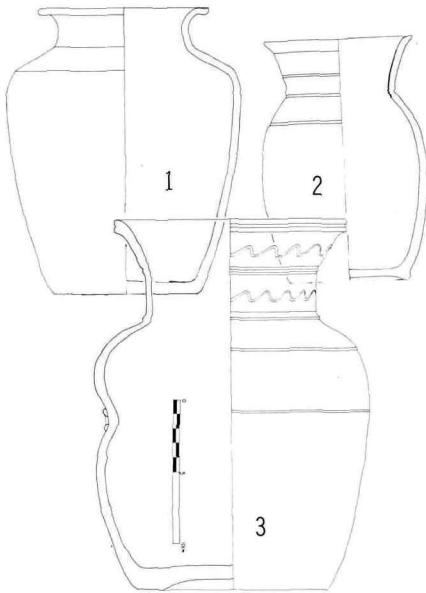


圖20. 筒形臺(雁鴨池)



圖21. 長頭筒形臺(雁鴨池) (右 60cm
左 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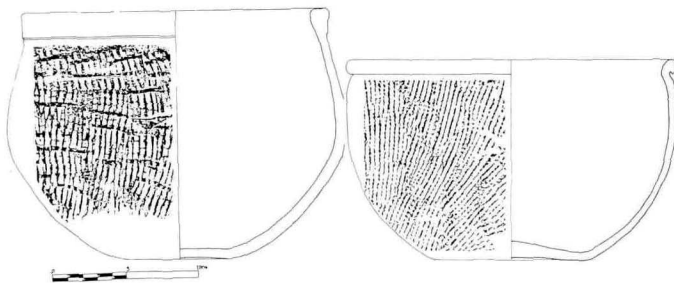


圖22. 廣口臺(雁鴨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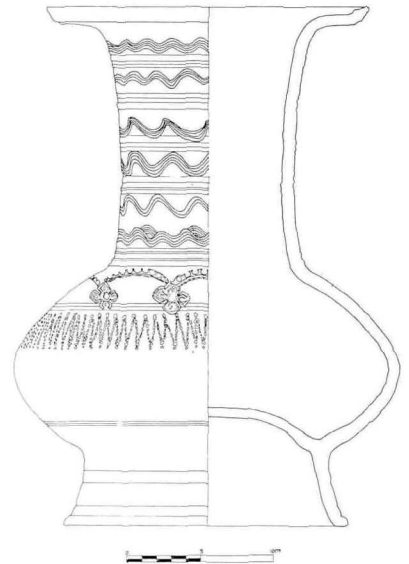


圖23. 雁鴨池出土 瓶形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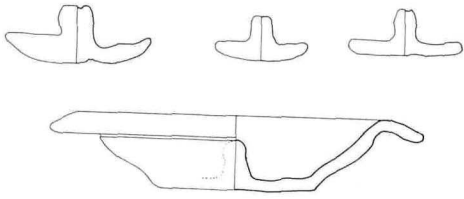


圖 24. 雁鴨池 出土 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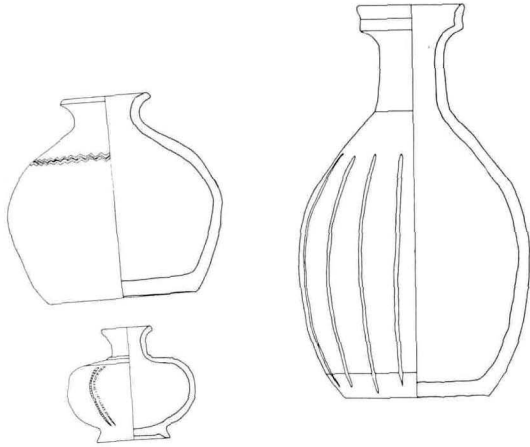


圖 25. 雁鴨池出土 瓶形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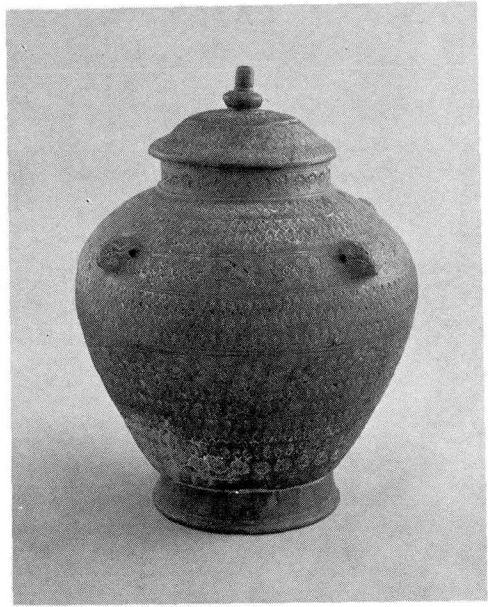


圖 27. 綠彩土器(統一新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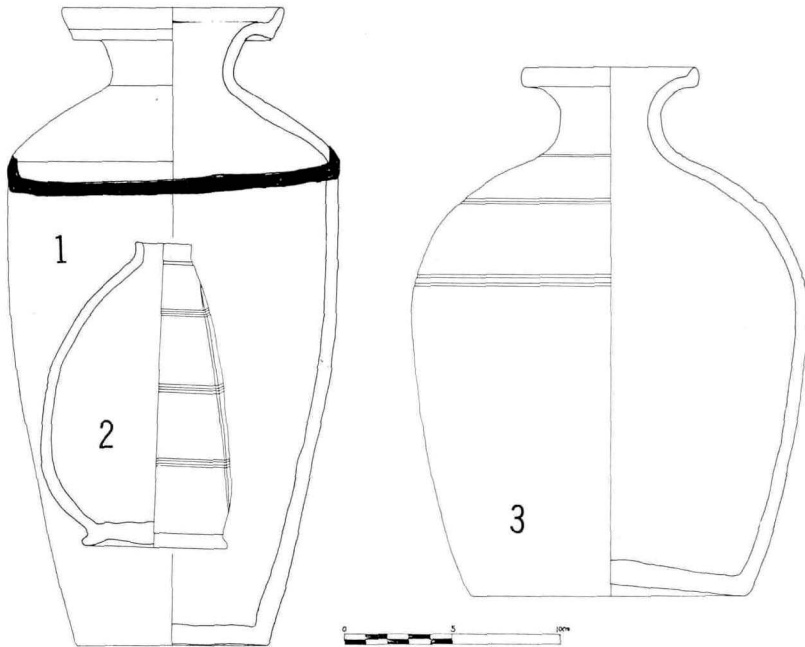


圖 26. 雁鴨池出土 瓶形器、方圓瓶、角瓶



圖 28. 綠釉印花文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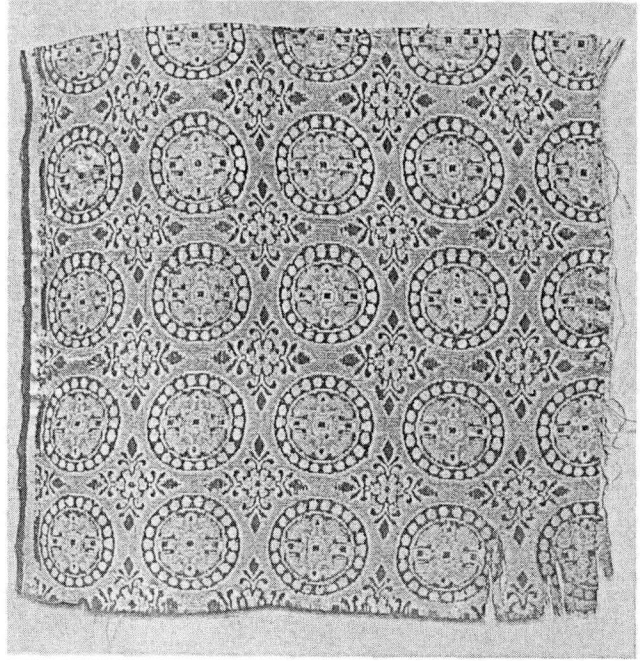


圖 29. 中央亞出土 連珠文錦



圖 30. 青磁凸花文瓶 (南北朝)



圖 31. 凸花文磁器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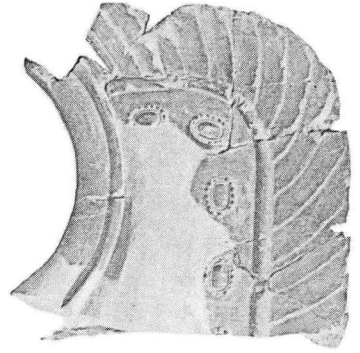


圖 32. 皇龍寺 鷓尾の連珠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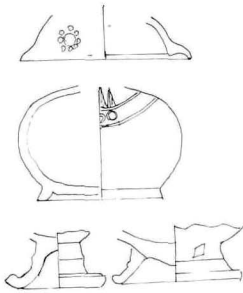


圖 33. 望星里窰址土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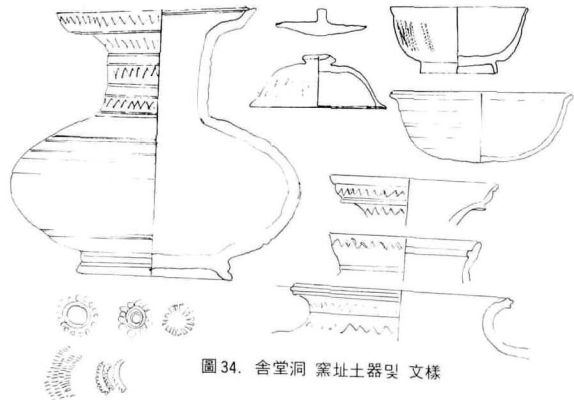


圖 34. 舍堂洞 窰址土器及文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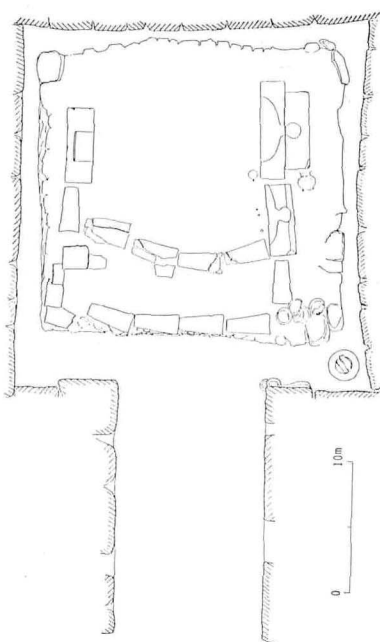


圖 35. 慶州西岳里古墳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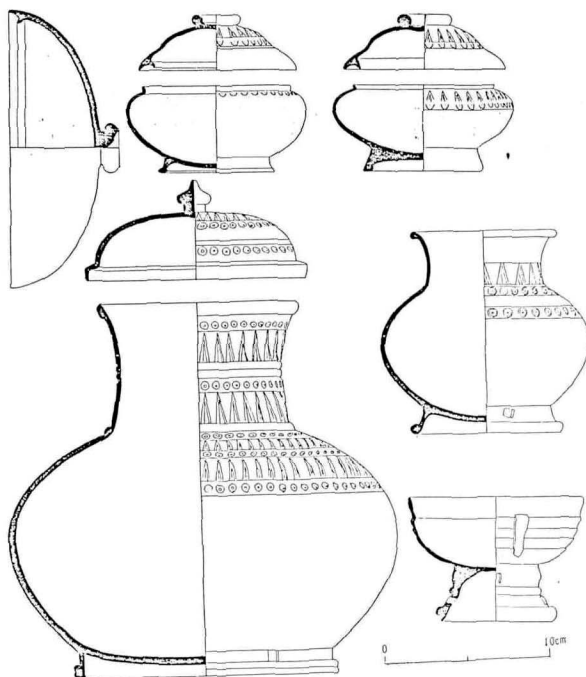


圖 36. 西岳里古墳土器類(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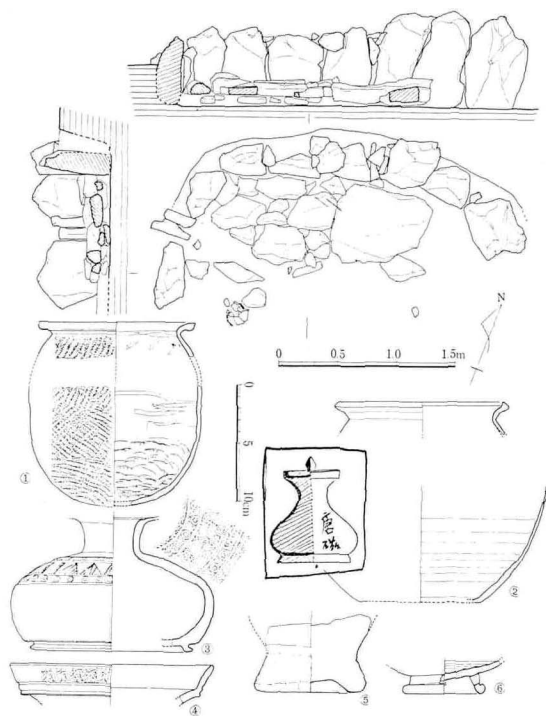


圖 37. 華山里 2 號墳 出土土器(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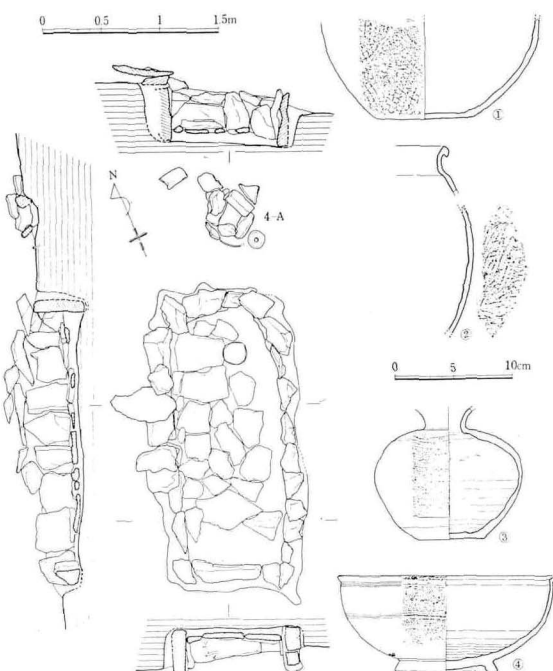


圖 38. 華山里 4 號墳 出土土器(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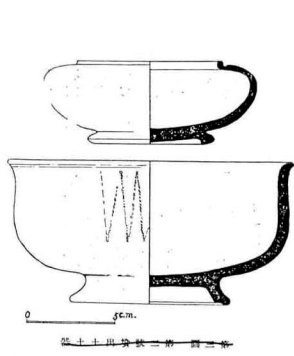


圖44. 忠孝里 第2號墳土器(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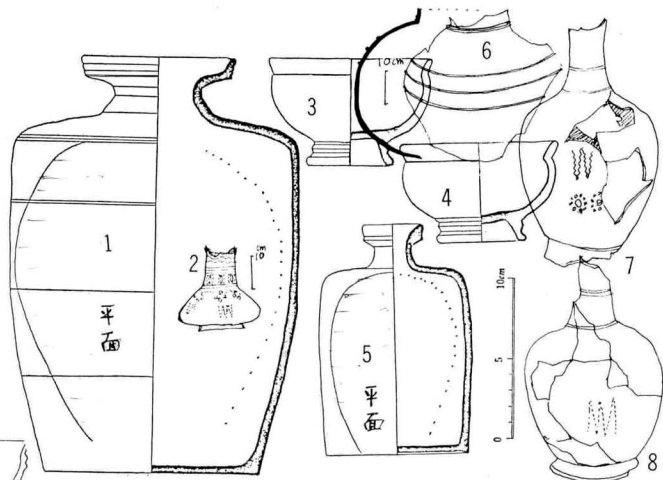


圖47. 天府洞 3號墳土器(後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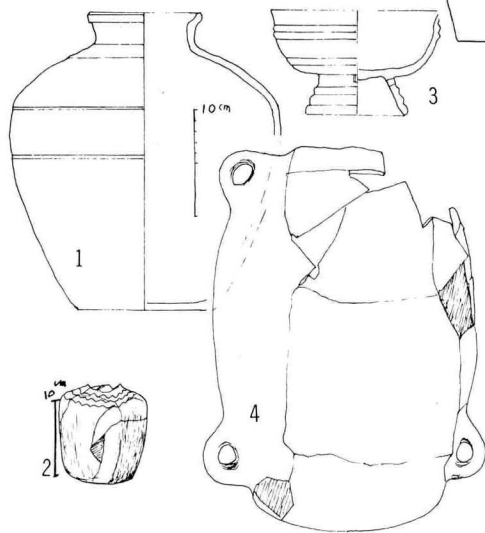


圖45. 天府洞 1號墳土器(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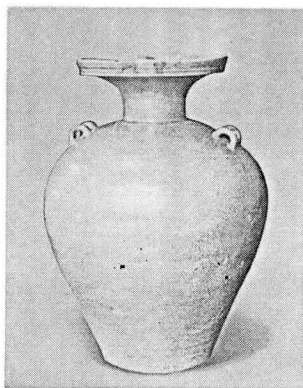


圖48. 盤口四耳瓶(中國東晉代)



圖49. 綠青磁口部
(仁川景西洞窟出土)



圖46. 綠青磁盤口瓶
(據 崔淳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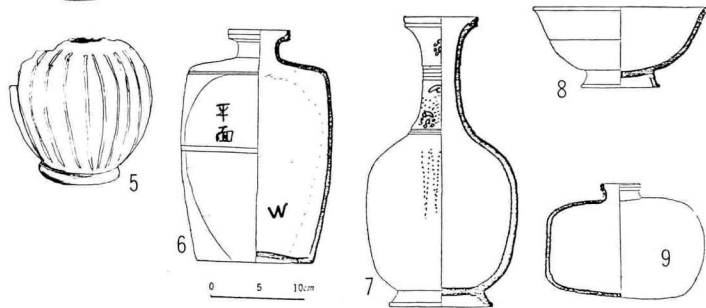


圖50. 天府洞 2號墳土器(後期)

어 器形은 U形에서 V形으로 되며 高麗初樣式에로의 轉換이 보인다.

口、印花文은 一部分서 계속 使用되지만 施文面積이 줄어들고 無文化傾向으로 바뀌어 이것亦是 高麗無袖陶器에로의 移行을 보여주고 있다.

르, 그러나 印花文手法은 潛流로서 高麗로 繼承되어 象嵌法이라는 技術로 浮出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미言及한 다른 連結點들과 함께 統一樣式과 高麗土器樣式사이의 連結關係가 앞으로 더 注目되어야 할 것 같다.

〔註〕
① 統一新羅期土器를 古新羅期土器와 區別하여 한 樣式으로 設定하려는 最初의 試圖는 有光教一에 의해서 忠孝里古墳報告書인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一九三七年刊行)의 結論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다시 그의 「新羅燒의 變遷」(河出書房 世界陶磁全集 一三) (東京一九六五年) pp. 207~219)에서 敷쳐져있다.

그 뒤로 그 骨壺에 대해서 齋藤忠 「新羅火葬骨壺考」(『考古學論叢』2(一九三三)原收, 全氏 「新羅文化論考」一九八三 pp. 231~250 修正再錄)와 鄭吉子 「新羅藏骨容器研究」(韓國考古學報 8, 一九八〇 pp. 39~102)의 두 論文이 骨壺에 대해서 다루었고 一九七九年的 韓炳三의 雁鳴池出土의 資料를 土臺로 「統一新羅의 土器」(小學館 『世界陶磁全集』13 pp. 241~261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5, 土器(一九八一) pp. 204~211)에 修正, 補充, 再錄이라는 새로운 概觀을 하고 있다.

② 文化財 管理局 『雁鳴池』土下 一九七八

③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pp. 47~48

④ 『雁鳴池』上卷 pp. 6~7

⑤ 이것은 日本側の 編年の 依한 것이다. 小田富士雄 「西日本發見の百濟系土器」(古文化談叢 五, (一九七八):

芳黃洞土器는 韓國考古學報四(一九七八)收의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參照

⑥ 姜仁求 『百濟古墳研究』一九七七年 pp. 107~118

⑦ 例를 들면 扶餘中井里4號墳土器 같은 것이며 姜仁求 上掲書 p. 112 圖 70

參照

⑧ 姜仁求 前掲書 pp. 183~185

⑨ 尹武炳, 朴日薰 「慶州西岳里石室墳發掘調査」(考古學一(一九六八): 77~114 小學館 『世界陶磁全集』2 日本古代(一九七九) 「畿內須惠器編年圖表」

그리나 九州에서는 低平音讀시類는 5期(9世紀)에 나타난다.

⑩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圖版54左下端

⑪ 이 窯址群의 發見은 美術資料22(一九七八·六)의 彙報欄에 報告되어 있다.

⑫ 그 面積은 一萬餘坪, 年代는 新羅初부터 統一末期라고 報告되어 있다.

⑬ 內藤匡 「古陶磁의 科學」(東京一九四四, p. 114, 144 金元龍 『新羅土器』 서

술一九八一, p. 91

⑭ 金元龍 「月城郡望里新羅窯址豫報」

金斗鍾博士古稀記念論集 一九六六: 21~30

⑮ 金元龍 「望里新羅陶窯址發掘豫報」(考古美術 六一五(一九六五): 3~9

李殷昌 『新羅伽耶土器窯址』一九八二: 168~201

⑯ 金元龍·李鍾宜 「舍堂洞新羅土器窯址調査要報」(文化財11(一九七七): 103~

130

⑰ 金元龍 「서울舍堂洞窯址의 新羅土器」(申奭鎬博士古稀記念論叢(一九七三):

1~16

⑱ 尹武炳·朴日薰 「慶州西岳里石室墳發掘報告」(考古學一(一九六八): 77~114

釜山大博物館 『蔚州華山里古墳群』一九八三

⑳ 國立博物館 『鬱陵島』一九六三年

㉑ 小學館編 『世界陶磁全集』18 高麗(一九七八) p. 133fig. 10